



## [낙농경영] 그리스 낙농업계, 에너지 위기에 타격

- 에너지 가격은 물론 패키징, 사료 등 생산비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



유럽의 에너지 재앙이 그리스 낙농업계에도 위기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그리스 유가공 및 낙농업계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이은 패키징 및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특히 낙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원유 생산을 포기하고 도축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, 금년 상반기 원유생산량이 전년대비 4.26% 감소한데 이어 올 여름 초 생산량은 전년대비 4~5%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낙농가수도 지난해 2,160명에서 금년 초 2,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소했으며, 4월 이후에는 1,900명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, 젖소 우유뿐만 아니라 산양 및 면양유 등 기타 착유동물의 원유생산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리스 통계청(ELSTAT)에 따르면, 생산비 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까지 비용 부담이 전가되면서 우유 가격은 금년 초 이후 10.55% 상승했고, 전년대비 15.1%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. 치즈 및 요거트 가격 또한 금년 초 대비 각각 15%, 7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< 출처 : ekathimerini.com, 8월 31일자 >

## [지속가능] 英 유업체, 100%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도입

- 새 플라스틱 배출량 연간 500톤까지 절감 기대



영국 유업체 물러가 크림 제품에 100%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을 도입했다.

최근 해당 업체는 크림 제품의 용기를 100% 재생 플라스틱(rPET)으로 변경했으며, 이 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이미 재활용된 재료로 만든 포장재임을 강조하고 나섰다. 이를 통해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새 플라스틱 배출량을 연간 500톤까지 감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현재 물러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재활용된 제품으로 우유병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유색 뚜껑을 없애고 재활용이 용이한 투명 우유 뚜껑을 도입한 바 있다.

< 출처 : dairyreporter.com, 8월 31일자 >

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